

콧시의 『철의 시대』(*Age of Iron*)에 나타난 모성의 의미

이 영 화

(전주교육대학교)

Lee, Younghwa. "Motherhood: J. M. Coetzee's *Age of Ir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3 (2020): 253-275. In *Age of Iron*, J.M. Coetzee addresses the specific situation in South Africa unlike his other novels where he does not explicitly involve his country's political circumstance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hite and black in his country, Coetzee employs a white female protagonist Curren, whose attitudes are changed toward the Other through her hospitality and motherhood. Curren, suffering from cancer, represents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prevalent violences and atrocities between white and black in South Africa. However, through her universal motherhood, Curren embraces the Other, such as not only Vercueil as a family member but also Bhecki and John as children, which, Coetzee believes, allows her to achieve the country's resuscitation as well as her own individual salvation from illnes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 Words: J. M. Coetzee, motherhood, South Africa, *Age of Iron*, salvation

I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 콧시 (J. M. Coetzee)는 남아공이 처한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초월하여 탈역사, 탈정치적 글을 쓴다. 콧시가 1978년 한 인터뷰 (*Doubling the Point*)에서 작가로서 감당하게 되는 의무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첫째는 “사회가, 사회의 영혼이, 사회의 희망과 꿈이 작가에게 부가하는 의무”(340)이고, 둘째는 “작가에게 고유한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340)이다. 작가라면 적어도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양

지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계몽까지 할 수 있는 책임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작가 개인 윤리에 따른 자율성에 속한다. 여기에서 콧시는 리얼리즘에 가까운 첫 번째 의무를 감당하기보다, 두 번째 의무를 “초월적 명령”(340)이라고 언급하면서 작가의 양심을 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변경을 통치하는 한 치안판사가 제국의 모순뿐 아니라 그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식민주의를, 탈신비화, 탈역사화하여 그 내적 고백을 그리고 있는 콧시의 소설 『야만인들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에도 나타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설정하지도, 역사적인 출처를 밝히지도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두고, 얀모하메드(Abdul JanMohamed)는 『야만인들을 기다리며』가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반영함으로써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신비화”(73)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콧시의 탈역사, 탈정치적인 글쓰기를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적극적으로 저항해 온 작가 나딘 고디머(Nadine Gordimer)와 같은 작가는 콧시가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한 것으로 지적한다. 콧시의 작품이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탈피하여 “다분히 실존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알레고리적이고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을 띠”(왕은철 128)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콧시는 자신이 “남아프리카 시민인 것은 여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를 남아프리카 작가 혹은 남아프리카 시민이며 작가로 만드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왕은철 96)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아프리카 역사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 갈등의 골을 염두에 둘 때 그 자신이 백인인 것과 그 갈등의 역사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데이비드 아트웰(David Attwell)과의 인터뷰에서 “밖에서 보기에 역사적 표본으로서 나는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어난 유럽의 확장의 거대한 운동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며, 같은 맥락에서 “나는 또한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고 그에 대한 해택을 누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대를 대표”(Interview 2)한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콧시가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서술함으로써 백인 스스로 고통 받는 처지에 놓이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 미묘한 문제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Bower 23)라고 언급한 데서도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야만인들을 기다리며』, 『포』(*Foe*)와 같은

소설 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사와 사회에 깊이 연루된 시대적 리얼리즘 글쓰기를 거부할 지라도, 백인으로서 시대와 역사에 얽힌 공모성에 대한 자백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와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는 역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콧시의 『철의 시대』(Age of Iron)처럼 시대와 역사에 대한 공모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소설이 생기기 마련이다. 앳트리지(Derek Attridge)는 『철의 시대』가 콧시의 다른 작품들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황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사실적인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수의 백인이 인종차별정책아래 차별과 탄압으로 약 300여 년 동안 흑인을 지배한 비운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 나라의 1948년에서 1990년은 잔혹한 인종차별주의인 아파르트헤이트를 두고 그 차별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수 백인 정부와 철폐를 요구하고 투쟁하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등 흑인 세력과의 갈등으로 시대적 혼란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철의 시대』는 아파르트헤이트제도의 배제와 폭력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케이프 플랫(Cape Flats)에 임시 거주지를 불 지르는 치안부대에 의해 동요된 위트독(Witdoeke)이라는 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나, 소웨토(Soweto) 시위 사건과 일치하여 1976년 남아프리카를 떠나는 딸의 결정은 이 소설이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실제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철의 시대』가 역사적 사실들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어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투영한다면, 탈역사적 글쓰기를 고수하는 그의 입장과 상충한다. 이 지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두 진술-역사와 탈역사-사이를 이어줄 문학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백인 작가 콧시가 이 작품 속에 역사적 사실을 투영하고자 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역사는 사실을 초월한다. 그러기 위해 작가가 사용하는 장치이자, 콧시 소설의 한 특징인 미니멀리즘 즉, 압축과 상징으로 재현하는 여러 기호와 언어 총체의 일부를 이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콧시가 『철의 시대』에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백인 여성 커런(Curren)이 타자 퍼케일(Vercueil)뿐만 아니라 흑인 아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성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커런의 모성 속에 녹아 있는 관심(care)을 통해 커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처한 비운의 역사

를 구원시킬 수 있다. 쿿시는 커런이 개인적으로 타자를 품는 환대뿐만 아니라, 모성이 상실된 시대에서 “어머니 되기”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한 대안적 화해를 드러낸다. 물론 백인 공모자로서의 고통과 자아 성찰의 무거운 짐을 진 조심스러운 대안이다.

II

198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혼란의 시기였다. 백인 소수정부는 비합법적 기구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게릴라 습격과 학생단체, 노동조합 및 지역 조직으로 결성된 통일민주전선(UDF) 봉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인종차별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내 강경파들의 압력에 의해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비상계엄(State of Emergency)을 선포하고 수천 명이 감금되고 사망했다. 이 시기 돌과 화염병만으로 무장한 통일민주전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인들과 싸우는 이 시기는 전쟁과 다름없었다. 『철의 시대』는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백인 주인공 커런이 나라와 그녀 주변 인물 흑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다룬다.

이 소설은 은퇴한 대학교수인 백인 여성 커런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독백체로 미국으로 이민 가 있는 딸에게 쓰는 편지형식으로 짜여 있다. 뜻밖의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 자신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술에 취한 부랑자 퍼케일과 마주치는 사건은 자신과 타자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 퍼케일은 “입을 짹 벌리고” “다리를 쪽 뺀고 종이박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지린내, 싸구려 포도주 냄새, 옷에서 나는 곰팡이내, 혹은 그 외의 다른 것들 때문에 나는 고약한 냄새, 불결함”(AI 4) 그 자체였다. 커런은 그의 이름도 정확하게 모른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퍼케일의 신원을 묻는 플로렌스에게 대답할 때, “저 사람은 퍼케일씨야, 퍼케일, 퍼킬, 퍼스킬. 잘 모르겠어”(AI 48)라고 한다. “퍼킬(verkul)은 아프리카어로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퍼스킬(verskuil)”은 “숨기거나 감추는 것(to hide or conceal)”을 의미하는 단어로, 퍼케일의 부랑자나 인종적 정체성을 암호화 하듯이 포착할 수 없는 타자임을 강

조하고 있다(Head 140). 사실상 퍼케일의 인종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밝히고 있진 않으나, 옛트리지는 플로렌스의 아들 베키의 친구가 퍼케일이 알코올 중독인 것을 꾸짖으면서, “그것들이 너를 개가 되게 하고 있어”(AI 42)라고 직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퍼케일이 흑인이라고 주장한다(“Trusting” 72).

퍼케일의 뜻밖의 반갑지 않은 방문과 커런이 예고 없이 진단받은 말기 “암” 소식을 들은 날이 동일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커런은 자신의 가사를 돌보는 흑인 여성 플로렌스(Florence)에게 자신이 암이 걸린 것을 알리면서 암이란 “평생 참아왔던 수치심이 누적되어” 생긴다고 한다. “자기혐오감 때문에 몸이 악의를 띠고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하는”(AI 189) 개인적인 질병으로 찾아온 암은, 소설속의 흑백의 갈등이 남아있는 구굴레투(Guguletu), 즉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서 술한 수탈과 폭력을 겪어온 고통의 보복적 폭력이 존재하는 곳에 가난과 폭력으로 누적된 흑인 부랑자 즉 퍼케일의 방문과 맥을 같이 한다. 프로빈(Fiona Probyn)은 커런의 암이 인종적 경계와 자아와 타인 간에 이분법적인 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메타포라고 지적한다(221). 이러한 대응적 해석이 가능한 것은 커런이 자신의 암 선고를 “암 선고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며 거절될 수 없는 것”(AI 4)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과 퍼케일을 집에 들이는 것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커런은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AI 5)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암이 자신의 것이고 거절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케일을 거절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퍼케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플로렌스가 퍼케일을 두고 “술 마시는 짓 말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AI 63)으로 “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사는 것이 싫어요”(AI 63)라고 불평할 때, 커런은 “이 사람은 나의 메신저야”(AI 63)라고 정의한다. 커런은 자신이 죽은 후에 딸에게 보내고 싶은 서류들을 우표를 붙여 준비해 둘 터이니 소포를 부쳐줄 수 있는지 부탁한다. 그녀는 “부치려고 하는 건 개인적인 기록들이고, 개인적인 편지들이에요. 그건 내 딸의 유산이에요. 그것은 이 나라에서, 내가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내 딸이 받을 모든 것”(AI 45)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다. 물론 커런이 그의 약속이 성실히 수행될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 임무는 결코 강요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의 여부는 전적으로 퍼케일의 결정에 있다(AI 45). 그러나 이 부탁에 대해 퍼케일이 “당신을 위해 소포를 부쳐드리지요”(AI 45)라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다면 커런의 편지는 죽음을 앞두고 딸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정을 나누는 개인적인 서사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커런 몸 속 암덩이가 가진 상징적 요소를 착안한다면 그녀가 쓰고 있는 편지는 흑백사이의 증오와 보복이 공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을 바라보는 커런의 윤리적 각성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엠틀리지에 따르면 편지가 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은 것을 두고 “사건임과 동시에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Ethics of Reading 93). 엠틀리지는 『철의 시대』가 이러한 편지의 형식으로 묘사되는 것은 “개인적 투쟁”(93)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느 면에서는 비판을 창출”(93)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므로 『철의 시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를 지양하는 전반적인 콧시의 글쓰기 경향을 거슬러, 커런의 사적글쓰기를 통해 “아파트헤이트를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Head 102)이다.

이와 같이, 콧시는 백인 여성 커런의 병에 걸린 몸, 그녀의 개인적 서사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편지형식과 같은 중간 매체들, 즉 기호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콧시가 이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파트헤이트 정권의 병폐에 대한 백인들의 무지이며 각성 뿐 아니라 타자를 향한 신뢰기 때문이다. 커런이 자기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 글은 너한테 쓰는 것이지만 너한테 쓰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결국 나한테 쓰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너한테 말이다”(11). 딸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실은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백인의 피를 가진 자기 자신이기도 한 딸, 즉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나라의 혼란을 벗어나 홀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딸, 즉 아파트헤이트 체제를 제대로 직시하기를 꺼려하는 백인을 향한 자아 성찰적 고백 행위다. 고국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으나 체제에 대한 정신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커런 “자신”이 수신자다. 커런이 “그는 나이고, 또 내가 아니기 때문”에 퍼케일에 관한 글을 쓴다. 그것은 커런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서 그녀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AI 14). “나는 그에 대해서 쓰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쓴다”(AI 14). 파농(Frantz Fanon)은 인간이 타인에 의해 인식되기(be recognized) 원하는 것

은 그렇지 않으면 타자로 남겨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피식민주의자가 식민주의자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때 이름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그들을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127). 피식민자가 인간으로 규정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식민주의자의 눈에 띄어 정체성을 구축하려한다는 관점과는 차이는 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함께 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별되며 홀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은 맥을 같이한다.

백인 여성 커런이 처한 신체적인 상태와 그녀의 사적인 글쓰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면, 콧시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택한 중간 매체, 그 행위의 주체가 백인 여성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콧시는 타자인 흑인과 백인 남성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좁히고자 백인 여성을 등장인물로 사용한다. 이것은 백인 여성이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주체자이고 백인 남성 가부장제도에서는 피해자로서 이중적인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다. 세자르(Amie Cesaire)는 식민주의는 인종을 기반으로 하며 인종주의, 야만주의, 식민주의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인종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식민주의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고 있다고 말한다(42).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백인 남성에게 억눌린 백인 여성의 고통은 인종 차별로 비인간적 취급을 받은 흑인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인종상 백인이라는 점이 백인 남성들과 함께 누린 혜택과 가해에 공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인여성은 콧시가 전개하는 서사에 적격인 셈이다. 그렇다면 백인 여성인 공통분모를 두고, 콧시가 『철의 시대』에서 커런이 타자뿐만 아니라 백인의 폭력에 대한 무지와 각성을 부인의 어떤 특성으로 해소시키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인 여성성 중의 하나인 모성이다. 피붙이에 대한 어머니의 선천적 모성성은 나와 관계가 없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보살핌의 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다.

III

커런이 어머니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가정과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는 현저히 다르다. 퍼케일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커런의 생각에는 어머니의 존재는 즐거움과 천국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어린 시절은 어머니와 가족들 간의 소중한 여행 및 즐거운 일상이다. 어머니가 자신이 뱃속에 품었을 때 “어머니의 가족들은 언제나 피상스 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찌나 멋지고 아름다운 지명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틀림없다고 확신 했”(AI 25)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그 곳을 찾았을 때는 전혀 다른 곳이 된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경험한 “천국”의 이미지는 어머니와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갈대”가 가득하고, “모기가 들끓고,” “아이들이 고함을 지르고,” “맨발에 짧은 바지를 입은 똥똥한 남자들이 소시지를 굽는 곳”이 되었다. 해마다 갈만한 곳도 되지 못했다(AI 25). 이와 같이 어머니 존재의 여부에 따라 천국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분화되는 것은 어머니의 부재는 천국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은 퍼케일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도 나타난다. “그에게서 나는 가장 지독한 냄새는 그의 신발과 발에서 나는 냄새다. 그에겐 양말이 필요하다. 그에겐 새 신발이 필요하다. 그에겐 목욕이 필요하다. 그에겐 새 신발이 필요하다.” “너무 많아 다 줄 수도 없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어머니의 무릎에 기어들어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많다”(AI 28). 커런의 시각은 퍼케일에게서 풍기는 냄새와 결핍은 어머니의 부재 때문이다. 퍼케일의 몸이나 양말, 신발 냄새는 어머니의 많은 보살핌(care)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동떨어져 있는 퍼케일은 어머니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부랑자이다. 커런은 이러한 퍼케일의 처지를 필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위로를 받을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듯 거리를 둔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셈이다.

퍼케일을 결핍의 대상으로 거리를 두는 커런의 태도는 그녀가 경험한 서양 문명 요소와 관련 있다. 문명과 야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중간 교각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커런은 무료한 일상을 문학의 고전 중 하나인

톨스토이를 읽고(21), 피아노 앞에서 고전 음악들을 연주하며 보낸다. “메마른 노벨로, 오게너 악보집에 있는 평균율 클라비어 서곡들, 쇼팽의 서곡들, 브람스의 왈츠들”(AI 33). 게다가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쳤다. 이러한 문명 영위는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퍼케일의 처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잉글리쉬 북(English Book)은 식민주의 권위, 욕망, 훈육 및 양가성을 가리키는 기호(signifier)라고 한다. 영문 책은 성경(Bib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 문화에서 텍스트를 상징하고 이것은 “영국 문화적 통치의 전통을 가진 제국주의, 이상주의, 모방주의, 단일문화주의”의 전통을 가진 서구의 이데올로기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105).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고전을 즐기는 커런은 서구 이데올로기 유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커런의 생애 내내 함께 해 왔던 고전은 그녀를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녀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만약 내가 밀 스트리트 아래쪽으로 산보를 한다면, 나의 천사를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구원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자문하지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AI 21). 게다가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묘사하는 것에서는 “나는 50년 전처럼 똑같이 화음을 잘못 읽고, 이제는 뺏속까지 스며들어 결코 고쳐질 수도 없는 실수를 되풀이하며, 전과 다름없이 형편없는 솜씨로 피아노를”(AI 33) 칠뿐 음악을 통한 어떤 감흥이나 긍정적 구원의 요소가 없다. 그녀가 평생 직업으로 가르쳤던 라틴어는 “죽은 것에 목소리를 불어넣”(AI 251)는 격이다.

커런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유산을 잃은 채, 함께 했던 남편도 딸도 떠나고 이제 병든 몸으로 홀로 남겨졌다. 월시(Walsh)에 따르면 제국주의적 유산의 상실은 모성의 상실에서도 나타난다(179). 그녀는 오래 전에 이별한 남편과 1976년에 미국으로 떠난 딸이 있지만, 그 딸은 미국인과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아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라빈드라나탄(Thangam Ravindranathan)은 커런의 편지를 “그녀의 아이의 상실에 대한 슬픔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 예상된 슬픔과 함께 융합”된 우울한(melancholic) 텍스트로 읽고 있다. 부인은 자신의 병든 상태를 나누고 싶은 피붙이가 곁에 있었으면 싶다. 예고 없이 찾아 드는 병의 고통스런 “돌풍”(AI 53)의 순간에 피붙이가 아니더라도 혹은 플로렌스라 할지라도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AI 53)라는 위로의 말을 해 줄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한다. “서로 다른 박자로 고르게 숨을 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모두 힘이 있으며 깨끗한 네 아이들에 둘러싸여, 잠을 자고 있을 플로렌스가 너무너무 부”(AI 53)럽다.

그러나 상실된 커런의 모성을 회복시키는 자는 다름 아닌 퍼케일이다. “벗고 다녀도 추위를 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도 아프지 않을”(AI 5) 정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퍼케일은 퍼케일은 죽음을 앞둔 커런에게 “천사”다. 커런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로서 그녀를 편지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천사이다. 물론 커런은 “그[퍼케일]는 분명 천사는 아니다”(AI 21)라고 말한다. 그러나 커런이 그 후 읽게 되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What Men Live By”)를 살펴보면, 죽음의 천사는 구두장이 사이몬과 그의 부인에게 찾아와서 “인간은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AI 81). 이러한 맥락에서 퍼케일은 커런이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퍼케일을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품도록 하여 커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천사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다른 사람, 즉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절대적 결핍에 처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윤리”적인 것으로 타자는 “나에게 인식되기 전에 내가 그 타인을 지정하기 전에 나에게 부여된다”(Otherwise 87)고 언급한다. 그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경험된 책임을 지적하며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사이를 다룬다. 이웃과의 조우는 주체가 타자를 속성 짓게 되는 문화적 범주를 선행하지만 그 주체의 책임은 “몸과 결속된 경험”이다. 즉 윤리적 관계는 인간의 몸서리침,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룸, 망명의 경험, 모성의 책임이 융합된 타자를 잉태하는 것이다(75-77). 레비나스는 주체가 헐벗은 타자의 얼굴에 거리를 좁혀 다가감으로써 그 타자를 책임지게 될 때 결국 주체가 향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경우 주체는 상처받게 쉬운 상태가 된다고 지적한다.

모성, 동일자 속의 타자의 잉태, 박해받는 이의 불안은 모성의 한 변형일 뿐이며, 그것이 감지하게 될 또는 그것이 감지하였던 것들 속에서 상처받게 되는 ‘모태의 신음’의 한 변형일 뿐이다. 모성 속에서 타자를 위하는 책임은 타자에 대한 대속으로까지 가고 고통을 겪는 것으로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 (145)

레비나스는 타자를 마주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이를 잉태하는 경험으로 비유한다. 아이를 낳으며 경험하는 고통은 무조건 적인 수동성이며 박해의 희생자, 이미 묶어진 애착의 수동성이자 대속적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퍼케일은 이름 모를 타자로 다가와 커런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모성을 일깨우게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커런은 잠에 취한 퍼케일을 깨우면서 학교에 가라고 자신의 딸을 깨우던 때를 회상한다. “‘일어날 시간이다!’ 나는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렇게 말하곤 했었지”(AI 75). 커런은 점점 퍼케일이 잠에 취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의 모자를 벗기고 기름에 절은 머리칼을 쓰다듬어야 할까?”(AI 75)라고 생각한다. 딸과 나누었던 일상과 보살핌에 관한 회상으로 퍼케일과의 거리를 좁혀간다. 퍼케일도 어머니의 배속에서 자랐을 생명체로 받아들이는 인간 윤리의 원형을 그린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고, 그 아이가 변질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사람도 옛날에 한때는, 주먹을 귀에 대고 눈을 황홀감 속에 꼭 감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떠다니며 어머니의 배에 자신의 배를 맞대고 그녀의 피를 마셨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모르 매트리스*(어머니의 사랑)를 알았을 것이다”(AI 7). 커런은 퍼케일이 보살핌 받지 못하고 “변질된” 상태가 되었으나 그도 과거에는 그녀의 딸과 같이 어머니의 피를 먹고 자란 존재라는 보편적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퍼케일을 딸과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기에는 여전히 “혐오감으로 몸이 떨린다”(AI 75).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의 향유의 자리를 타자에게 내어 준 채 한 없이 대속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비자아의 무게를 지탱하는 속죄는 승리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 또는 교회적인 자아의 자유와 제국주의를, 즉 구성되거나 자유로운 ‘자아들’의 역사를 전제한다. 속죄로서의 자신은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편에 있다”(219-220). 따라서 커런이 타인의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의무가 완전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인간이든 어머니이든 대속과 책임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으며 능동성과 수동성을 반복하며 대속의 책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갈등이 무한하다. 이러한 견지와 관련하여 김혜령은 레비나스의 모성의 개념은 대속의 무한한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의 내면으로서의 주체의 나약함이 삭제되어(257)” 있다고 주장하며 레비나스의 윤리학 속

에 나타난 모성의 과장성을 지적한다.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는 과장된 모성 개념을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내면화시키면서 완전한 수동성의 상태로 자신을 다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삶(생명)을 위한 일말의 향유 권리를 붙들고 있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자기비하에 빠지게 한다”(257)고 지적하면서 완전한 수동성으로서의 ‘엄마 되기’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레비나스의 무한 윤리학에서 주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절대적 책임성이 왜 많은 독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런의 내적 갈등은 주체의 끊임없는 상처받기 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레비나스의 절대적 대속의 경험인 모성을 상처받기와 상처 주기의 반복이라고 본다면 김혜령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성은 “타자에 대한 대속적 주체인 ‘나’의 자기 비움이 아니라, 나로 인해 연약한 타자를 주체되게 하고 그로 인해 나도 주체가 되는 상호적 윤리의 원형”(259)이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수고로 인해 주체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수고의 환희를 아이로부터 돌려받기 때문이다. 커런이 모종의 마음을 열고 퍼케일을 바라보는 모성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를 집안으로 들이고 상호 윤리적 단계로 들어간다. 플로렌스의 아들 베키와 그의 친구 존의 사고로 퍼케일과 우드스톡 병원에 갈 때, 커런이 “가족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온 것 같”(AI 91)은 기분을 느끼도록, 그 수고의 환희를 돌려주는 존재다.

이러한 커런의 변화는 부인이 집을 자선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가정 즉 “집”이 되게 하는 것에서 환대를 향해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런은 먼저 퍼케일에게 필요한 침대를 내주고 맞이한다. 자기 집을 “거지들을 위한 안식처” 혹은 “무료 급식 시설과 공동 침실”과 같은 자선시설로 만들지 않는 것은 나라에 사라진 “자선의 정신”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자선은 라틴어로 마음을 의미”하고 “주는 것처럼 받는 것도 어려운 법”(AI 32)이다. 사실 자선의 어원은 “관심, 배려, 돌봄(care)”에 관련되어 있다. 관심(care)이야말로 “자선의 진정한 근원”(AI 32)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퍼케일이야말로 커런의 집이 돌봄과 관심의 가정이 되도록 돕는 주체자다. 가족과 같은 환대로 점점 가까워지기까지 퍼케일의 돌봄, 아내와 남편과 같은 관계 설정이 가능해진다. “당신에게는 아내가 필요해요”(AI 246)하기에 퍼케일은 커런을 위해 매일 쇼핑을 하고 저녁

에는 요리를 하며 그녀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그 주위에 있다. 그녀의 방에서 함께 산다. 그뿐만이 아니다. 속옷을 빨고 있을 때 몸을 구부리기 고통스러워하는 커런을 위해 “빨아줄게요”(AI 249)라고 호의를 보인다. 결국 퍼케일이 “대신 널 어줘야 했다”(AI 249).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에게 마음을 열고 그 책임을 이해하는 윤리적인 주체가 되는 것에는 ‘집’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150-51). 집 밖의 고된 노동 세계에서 지친 나를 환대하고 위로 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산출물을 나의 소유 재산으로 모아두고 언제라도 맞닥뜨릴 바깥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항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즉 바깥 세계로부터 음식을 얻어오는 나의 의존 상태를 진정으로 독립시켜 자유를 보장하는 자리인 것이다(*Totality and Infinity* 126). 레비나스는 나를 환대하는 집을 “여성적인 것”으로 언급하며 이것은 “거주와 집의 내재성, 그리고 맞이함의 조건”(145)이라고 한다. 집안의 여성은 너무 친숙하여 당신(Vous)이 아니라 단지너(tu)라고 불리며 언제든 헐벗은 타자나 미래의 타자(아들)가 호출할 때까지 주체인 ‘나’의 집을 지킨다. 레비나스는 ‘나’의 주체성이 한편으로는 집안의 여성의 환대를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나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이중적 관계를 설명한다.

이것은 멀리서 사진 속에 갇혀있거나, 혹은 전화 음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딸의 자녀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커런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딸이 보낸 휴양지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 속의 손자들을 보면서 “그 애들은 내 손자들이 아니다. 그 애들은 내 손자가 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AI 255)라고 언급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아이들이 카누 밖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당 덕택에 물위에서 안전할 뿐 만 아니라, 그런 중에도 모터보트가 도달해 그들을 안전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너무 다른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질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그녀는 “많은 가족을 남기고 죽는 게 아니다. 딸 하나. 배우자와 그의 개(AI 255)”이다. “배우자와 그의 개”를 남긴다는 것은 퍼케일을 그의 임종을 함께한 배우자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가정의 부부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두 쪽으로 접은 종이처럼, 접혀진 두 날개처럼, 하나 위에 다른 걸 접으며, 침대를 같이 쓴다. 합쳐진, 부부간의, 오래된 짝, 이단침대 짝”이 된다. 커런은 자신

이 “그림자 남편 옆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해야”하고 자신을 “V 부인”이라 명명한다.

사실 커런은 지난 밤 딸을 부르려 했으나 딸은 오지 않으려 했다. 그렇기에 커런은 홀로 어둠 속에 대고 “나의 딸아, 나의 아이야”(AI 257)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은 딸의 몸이 아닌 사진 뿐. 만질 수 있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절. 단절된 선”(AI 257)이다. 그러나 커런이 느끼는 딸과의 그 단절된 선도 퍼케일을 통해 이어진다. 커런은 퍼케일이 자신을 도와줄 것인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AI 256). 그리고 자신이 그의 보호에 들어간 것도 아니며, “우리는 서로의 보호 하에 들어간 것이었다”라고 고백한다(AI 256). 커런이 퍼케일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녀가 처음으로 악취를 맡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AI 258). 백인을 대표하는 커런이 흑인이라고 볼 수 있는 타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란 서로가 서로의 보호하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 커런은 퍼케일을 집안으로 들이고 배우자로서의 그의 보살핌도 받아들임으로써 전달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개인적 서사를 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단절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IV

커런이 낫선 한 타자 퍼케일을 환대하고 가정을 이루는 관계는 사적인 경험 너머로 커런의 자각을 일깨우는 외적 사건을 통해서 극대화된다. 커런은 비윤리와 폭력으로 잔인한 살인이 이어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절망스럽다. 어머니의 부재로 보살핌이 결여된 곳은 성장이 정지된 곳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성성은 백인 인종의 재생산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다. 영국 인종의 힘 보존에 있어서 여성의 의무가 강조되었고, 중산층 페미니스트들은 제국주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책임에 동의한다. 그리스만(Laura Chrisman)가 지적한 것처럼 영국을 어머니의 땅(mother land)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머니 나라”로서 자녀(식민지)를 잘 양육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영국인의 소명을 신성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146).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볼 때, 아프리카대륙은 아무도 밟지 않은 처녀지이자 사악하고 올바른 어머니가 부재된 카니발적인 곳이다. 플로렌스가 “더 이상,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AI 64)는 발언에 커런은 부모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커런이 제국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녀에게는 “방화와 살인, 충격적인 비정함”(AI 64)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퍼케일을 두들겨 패는 아이들이란 부모의 보살핌이 결여된 결과물이다. 만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너의 주인은 이제 너 자신”(AI 64)으로 알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혼란에 빠진다. 자신에게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 “죽음을 어머니로 삼게 되며, 그들은 결국 “죽음의 자식”(AI 64)이 된다. 커런에게 이 같은 사실은 자신과 깊은 연관이 없다. 자기 딸이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죽음의 자식들이 되어가는 흑인 아이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자족할 뿐이다. 폭력과 살인을 둘러싼 인종주의에 속수무책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딸이 “이놈의 나라”(AI 79)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아이, 나의 육체, 나의 최고의 자아, 난 너에게 오지마라고 말하고 싶”(AI 103)을 정도로 방관적이다.

이러한 시선은 베키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커런은 베키에게 “왜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거지?”(AI 89)하고 묻는다. 베키는 “학교가 뭐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우리를 아파르트헤이트 제도에 맞추는 곳이에요”(AI 89)라 한다. 커런은 “아파르트헤이트는 내일이나 모레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미래를 망치는”(AI 89)것이라고 지적하며 이해보다 훈계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죠? 아파르트헤이트가 붕괴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학교에 가는 것인가요?”라는 베키의 질문은 더 근본적이며 도전적이다. 딜레마에 봉착한 커런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냐”(AI 89)라는 미봉책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커런은 보살핌 없이 죽음을 어머니로 삼는 이 시대의 아이들을 두고 “돌처럼 변해가는 심장”(AI 50)을 가지고 살인과 폭력을 실천하도록 훈육된 병사와 같은 “철의 시대”에 사는 “철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AI 50). 헤시오드(Hesiod)는 역사를 금, 은, 청동, 영웅, 철의 시대와 같이 다섯 개의 시대로 분류하는데, “철의 시대”에 대해서 “아이들은 늙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신을 향한 두려움을 모르

는 죄인”(7)이었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취한다. 커런은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가 제국주의적 이념이 지배했을 때와 달리 변했다고 지적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교육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었지.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절약하고 저축했었지. 아이들이 학교에 불을 지르는 걸 보았다면 우리들은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야”(AI 51).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살핌의 한 특권인 교육을 누렸던 시절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이 처한 표면적인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이 시대의 아이들의 행동을 탈선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아파르트헤이트 제도의 모순에 대한 보복과 폭력의 양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선으로, 과농이 지적하는 바처럼 백인 지배자들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집단 폭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The Wretched* 48-49).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플로렌스는 “이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고, 그들은 철과 같으며,” “그들을 자랑스러워”(AI 50)한다. 오히려 부모의 시대가 끝나 버렸다고 배우고, 불에 타고 있는 여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더 많은 기름을 끼얹고 웃는 아이들처럼 잔인하게 만든 것은 “백인”이며 백인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한다(AI 50). 시대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커런과 대비되는 플로렌스의 해석은, 패리(Banita Parry)가 지적한 것처럼 흑인여성이 백인 여성에게 경멸을 보내는 어쩔지 둘 간의 수직적 관계 역학이 뒤집어진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볼 수 있다(79). 커런이 보기에 플로렌스도 “철과 다르지 않다”(AI 66). 플로렌스는 “철로 된 심장을 갖고 국가를 위해 싸울 아들들을 낳는 스타르타 부인”(AI 66)이다. 그러나 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 “철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 세대는 “푸어트레카”(Voor trekker: 네덜란드계 백인 탐험가들)이다. 푸어트레카가 백인 후예들에게 “훈련, 일, 복종, 자기 희생이라는 낡은 통치방식, 죽음의 통치방식들”을 가르치면서 흑인들을 증오하게 하는 백인열성당원들(White Zealots)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이 백인 아이들도 “때로는 운동화 끈도 묶지 못한 만큼”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화강암 시대”의 백인과 흑인들의 선조들과 뿐만 아니라 “철의 시대”의 그 후손들을 보면서 커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AI 51)라고 한탄한다. “화강암 시대”를 원망하는 플로렌

스나 “철의시대”를 개탄하는 커런 모두 아파르트헤이트제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잔재한 증오와 복수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커런은 흑인아이들은 “백인에 의해 만들어진 괴물”(AI 50)이며 그들이 갖게 된 잔혹성의 모든 책임이 백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운동화 끈을 묶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에게” “훈련, 일, 복종, 자기희생”을 요구하며 “죽음을 통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런의 궁극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사건은 베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다. 구쿨레투 지역에서 플로렌스의 아들, 베키 외 그의 친구 존 및 흑인 학생들이 백인에 대한 저항 및 보복의 행위로 학교에 방화를 하는 상황에서 베키가 위협에 처하게 되자, 커런은 플로렌스, 퍼케일과 함께 그곳을 찾아 간다. 구쿨레투라는 타운십(Township)은 아프리카의 도시빈민가다. 아파르트헤이트 제도하에서 가난, 술한 폭력, 약탈과 고초 속에서 백인정권에 향한 적대감만이 남은 곳이다. 커런은 무장 경찰들 앞에서 수업을 거부하며 앞장서 싸우며 눈앞에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목격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내전을 사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인다(Canepari-Labib 110). 불타는 흑인 거주지에서 시체로 변한 베키를 바라보면서 “열 살 밖에 안 된” 아이가 역사의 양금의 총알받이로 죽어가는 “그 시대의 아이들”(AI 92)에 대해 모성이 발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커런은 베키의 뜬 눈을 목격하고 “이것은 내 인생에서 목격했던 것 중 최악의 것이다. 이제 나는 눈을 뜨게 되었고 다시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AI 103)이라고 고백한다. 잔혹한 폭력과 강한 동료애로 무장했던 베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자 두려움에 떠는 아이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발휘하는 모성의 힘으로 베키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사실 베키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소웨토에서 1976년 저항 운동에 가담하여 죽은 학생들의 죽음과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1977년 흑인 의식 운동을 이끌었던 스티브 비코(Steve Biko)가 감옥에 구금되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죽게 된 것이나 계엄령 아래 흑인 학생들이 자강운동에 참여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배경을 담고 있다(Sparks 230). 역사와 시대적 맥락을 떠나 학생들의 폭력과 저항 운동을 비난했던 커런은 “철의 시대”의 아이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제도 후의 저항과 보복이 청동기 시대, 즉 자기 시대, 자신의 잘못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베키를 플로렌스의 자녀

로만 구분 짓고 그의 탈선을 플로렌스와 같은 흑인 부모의 불찰의 결과로 단정했던 배제와 편협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베키를 보편적인 아이로 받아드리며 잠든 모성애를 자각한다.

커런은 베키가 어른들의 구호와 함성에 “돌을 던지고 총을 쏘는 일”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나 질식하여 죽어가는 베키의 얼굴은 “천진난만한 아이”(AI 125)의 모습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제도가 만들어 낸 가면을 벗고 어린아이 천연의 모습을 본 커런은 어머니의 보편적인 모성애로 베키를 애도하게 된다. 커런의 모성이 편향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양태는 백인 경찰들에 쫓기며 사고가 나서 쓰러진 피를 흘리는 베키를 목격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내가 힘을 빼자 피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AI 83). 커런은 미국에 있는 딸에게 베키가 흘리는 피를 “너와 나의 피와 똑같은 피”(AI 83)라고 한다. 커런과 자기 딸이 모녀지간인 것은 혈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혈연관계의 유대를 친혈육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 수평적 연대로 확장시킨다. “피는 하나이기 때문이다”(AI 83).

커런이 아이에게서 흐르는 피를 보았을 때 자신은 20년 동안 피를 흘리지 않는 메마른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병을 잉태했다. 그것들은 “날마다 먹는 게 더 많아지고, 자라지는 않지만 부풀고 이빨이 나고 발톱이 나고, 영원히 차갑고 탐욕스러운, 내속에 있는 아이들(AI 85)”이다. 남아프리카의 백인의 폭력과 백인에 대한 흑인의 저항으로 끊임없이 양쪽의 폭력과 항의가 거세지는 상황은 병이 악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커런은 자신이 잉태한 암 덩어리를 “숙주의 몸에 끼 놓은 벌레의 알처럼, 이제 유충으로 자라 무자비하게 그 몸을 먹어치우듯. 내 안에서 자란 나의 알들. 나(Me), 내 것(mine)”(AI 85).이라고 표현하며 자기 “딸인 생명”과 그 암을 “자매”의 자리에 배치한다. 결국 암 덩어리와 딸을 함께 “모성”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놓는다. 커런의 방법은 불로 죽음으로써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배열을 잇는 것이다. 커런은 자기 죽음을 나라의 미래와 연관시켜 자신의 죽음처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AI 85)이기에 그녀가 죽은 후 그 “젯더미에서 무엇인가가 자라야 할 시간”(AI 85)이라고 언급하며 나라를 두고 소생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커런의 변화는 존(John)을 향한 태도 속에서도 나타난다. 커런은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베키와 존이 못마땅하다. “나의 차, 나의 짐; 나의 것; 나는 아직 떠나지 않았단 말이다”(AI 58). 베키와 존이 자동차 충돌사고로 쓰러졌을 때 돕고자 하는 선의를 보이지만 허락 없이 자기 집에 들어와 차를 사용하는 사적인 침범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베키가 죽은 후 자신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쫓기는 아무런 친분도 없는 존을 돕고자 한다. 사실 커런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혼자 내버려뒀으면 싶”(AI 179)고 그것이 자신의 “첫 고백”(AI 179)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추한 상태에서 죽고 싶지 않다”(AI 179). 구원받고 싶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해야 한다.” “영리하고 작은 베키가 아니라 이 아이 말이다”(AI 179). 커런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구원의 일부가 되기 위해 지금 자신 앞에 존재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를 이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AI 179) 커런은 존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부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실천은 어머니라면 친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발휘하기 마련인 본능적 보편적 애정으로 이루어진다. “뭔가가 나로부터 그에게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었다”(AI 199). 레비나스가 말하는 “주체화된 것이 아닌 타자에게 주는 신호 속에 증언되는 무한은 모두를 위해 고통스러워하지만 모든 것의 짐을 짊어지는 모든 것에 속하는 주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주체, 타자를 위하는 자, 타자를 위하는 책임으로부터 출발할 때만 의미를 띤다”(278). 결국 컷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타자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겪고 있는 “추한 상태”에 대한 구원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V

모성은 남성의 생산적 노동에 대응하는 여성의 재생산 능력으로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임신과 양육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과 연관 있다. 술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과 같은 페미니스트는 이와 같은 관점이 여성의 억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드리엔느 리치(Adrienne Rich)

는 모성을 억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모성의 사회적 육체적 재현이 여성의 창조력에 대한 은유적 재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모성의 체험을 두고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여성 연대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성을 되짚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런의 모성성 재확인 은 자기 자신을 사회로부터 구원시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한 시대를 승화시킬 여지를 마련한다.

먼저 커런은 퍼케일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 구원을 실현한다. 암 판정을 받은 날 찾아온 퍼케일의 존재는 커런이 부인하고 싶은 자신의 몸속의 암덩어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병마와 투쟁하면서 타인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구원 실현에 있어 필요한 타자다. 즉, 복수와 투쟁으로 타자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퍼케일을 환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원의 과정 속에 녹아있는 커런의 방법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 즉 여성성을 통한 승화다. 퍼케일은 씻고 설 집도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방랑자이지만, 커런은 그가 들어와 설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아내와 남편과 같이 가족과 같은 유대를 맺으며 타자를 환대한다. 이처럼 커런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고통의 근원인 암 덩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재로 변하게 될 때까지 타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재로 변한 그 몸에 새로운 것을 잉태할 수 있다. 즉, 전시상황처럼 “불타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긍정적인 용서의 싹이 틔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낫시는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타자를 환대하고 보살피는 재현함으로써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처한 폭력과 분노, 흑백 간 분열의 해결을 모색한다.

커런이 모성과 가족 관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타자를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를 겪은 것 이외에도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직시 역시 모성을 통한 현현의 과정을 통해서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방화와 시위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존중하지 않는 “철의 시대”에 속해 있다. 그러나 부모의 보살핌을 상실하도록 철의 시대를 낳은 것은 바로 본인과 같은 백인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나이의 아이들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자각하면서 혈육이상의 흑인 아이들을 타자의 위치에서 자기 아이의 위치까지 끌어 올려 보듬을 수 있게 된다. 플로렌스처럼 올바른 자녀 양육과 보살핌의 중요성을 상실한 부모와 어머니의 보살핌을 상실한 철의 시대

자녀를 위해 스스로 어머니가 됨으로서 시대의 혼란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모성애는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커런 자신의 각성뿐만 아니라 백인중심주의로 만연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병폐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베키뿐 아니라 존과 같은 타자인 어린 아이들을 모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백인으로서의 자기 구원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상처로 얼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를 향한 해결책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담긴 타자 수용을 제시한다. 아트웰은 커런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커런의 관점이 강한 상상적 동정(strong imaginative sympathy)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케일에게 편지를 맡기는 것은 이 소설이 신뢰(trust)를 다루고 있으며, 결국 텍스트의 표면 기저에 함축되어 있는 가족 유대감(familial bonds)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The Life of Writing* 150).

콧시가 그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재생 가능한 땅이다. 커런은 그녀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의 몸 위로 수레바퀴가 구르는지 별들이 구르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AI 159)에 매달려왔다.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이며, 자신이 시작된 곳이다. 그렇기에 커런은 지도가 없이 태양을 따라 북쪽과 동쪽으로 운전해 가더라도 그 곳, “멈추는 지점, 시작하는 지점, 배꼽, 내가 세상에 합류한 지점”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땅 위의 한 지점을 향해” 이게 “나의 어머니,” “나에게 생명을 준 것”(AI 159), 무덤이 아닌 “재생의 장소”, “신성한 땅”이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 어머니로서의 땅은 재생, 그것도 영원한 재생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서사를 통해 개인적인 타자와의 신뢰 뿐 만 아니라 시대의 혼란의 죄의식을 고백하며 죽는 커런의 몸은 땅속에서 재생된다. 생명을 준 어머니의 마음으로 타자와 세상을 대면한 부인은 어머니의 생산을 닮은 재생의 장소로서의 땅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피와 분노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이 무덤이 아닌 재생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콧시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아내 되기”, “어머니 되기”와 같은 모성으로 가능하다.

Works Cited

- Kim, Hye-Ryung. "The Maternity of Oblivion and Exaggeration in the Ethics of Levinas." *Hermeneutik Studien* 30.1 (2012): 229-66. Print.
[김혜령. 「레비나스의 윤리학 속에 나타나는 망각과 과장의 모성」. 『해석학연구』 30.1 (2012): 229-66.]
- Wang, Eun Chull. *Literary Masters: Interviews with and Essays on 9 Authors*. Seoul: Hyundaemunhak, 2010. Print.
[왕은철. 『문학의 거장들: 세계의 작가 9인을 만나다』. 서울: 현대문학, 2010.]
- Attwell, David. "Editor's Introduction." *Doubling the Point: Essay and Interviews*. Massachusetts: Harvard UP, 1992. 1-13. Print.
- _____. *J. M. Coetzee and the Life of Writing: Face-to-Face with Time*. New York: Viking, 2015. Print.
- _____. "An Exclusive Interview with J.M. Coetzee." *Dagens Nyheter* 8 (2003): 1-4. Print.
- Attridge, Derek. *J. M. Coetzee and the Ethics of Reading*. Chicago: U of Chicago P, 2004. Print.
- _____. "Trusting the Other: Ethics and Politics in J. M. Coetzee's *Age of Iro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3.1 (1994): 59-82. Print.
- Banita Parry. *Postcolonial Studies: A materialist critique*. New York: Routledge, 2004. Print.
- Bhabha, Homi. "Signs Taken For Wonders: Questions of Ambivalence and Authority under a Tree outside Delhi, May 1817."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rint.
- Bower, Colin. "J. M. Coetzee: Literary con Artist and Poseur." *Issues in English Studies in Southern Africa* 8.2 (2003): 3-23. Print.
- Canepari-Labib, Michela. *Old Myths-Modern Empires: Power: Language, and Identity in J. M. Coetzee's Work*. New York: Peter Lang, 2005.
- Cesaire, Aime. *Discourse on Colon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0. Print.
- Chrisman, Laura. *Rereading the Imperial Romance: British Imperialism and South African Resistance in Haggard, Schremer, and Plaatje*. Oxford: Oxford UP, 2000. Print.
- Coetzee, J. M. *Age of Iron*. New York: Penguin, 1990. Print.
- _____. *Doubling the Point: Essays and Interviews*. Ed. David Attwell. Cambridge: Harvard UP, 1992. Print.
- _____. "Two Interviews with J. M. Coetzee, 1983 and 1987." Tony Morphet. *TriQuarterly* 60.1 (1987): 454-64. Print.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2008. Print.
- _____.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e Farrington. New York: Penguin, 1985.

- Head, Dominic. *J. M. Coetzee*. Cambridge: Cambridge UP, 1997. Print.
- Hesiod, Poems and Fragments. Trans. A. W. Mair. Oxford: Clarendon Press, 1908. Print.
- JanMohamed, Abdul.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Autumn 1985) Print.
- Levinas, Emmanuel. *Humanism of the Other*. U of Illinois. 2003. Print.
- _____.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P, 1969. Print.
- _____.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Pittsburgh: Duquesne UP, 1969. Print.
- Probyn, Fiona. “Cancerous Bodies and Apartheid in J. M. Coetzee’s *Age of Iron*.” *Critical Essays on J. M. Coetzee*. Ed. Sue Kossew. New York: Hall, 1998. 214-25. Print.
- Ravindranathan, Thangam. “Amor Matris: Language and Loss in J.M. Coetzee’s *Age of Iron*.” *Safundi* 8.4 (2007): 395-411. Print.
- Rich, Adrienne.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1995. Print.
- Shulamith Firestone, *The Dialectic of Sex*. The Women’s Press, 1979. Print.
- Sparks, Allister. *The Mind of South Africa*.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1. Print.

이영화 (전주교육대학교/시간강사)

주소: (54116) 전북 군산시 공포 2로 25 302동 603호

이메일: wish-20@hanmail.net